

# 전북도, 내년도 예산 확보 '잔걸음'

### 송하진도지사, 기재부 등 방문 핵심사업 설명 적극반영 건의

전북도가 2017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중점사업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한발 앞선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등을 만나 도의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2017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것을 건의했다.

먼저 송 지사는 산업부 이관설 제1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건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에타 대상 선정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에타 통과를 건의 했다. 또한 ▲자동차 전장기능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사업 등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어 송 지사는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과 김 중훈 식량정책관을 만나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금강지구 농촌종합개발 확대 ▲소스 산업화센터 건립 ▲국립 간척지 농업 연구센터 건립 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해수부에서는 윤학배 차관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신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조기완료 ▲군정항 항로조설 2단계 사업 등의 절실함을 설명했다.

국토부 사업으로는 최정호 제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호남고속도로(삼례C~김제ICT) 확장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올해 6월 고시에



전북도는 2017년 국가예산 주요사업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부처별 예산 편성전에 한발 앞서 중앙부처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일 송하진 도지사가 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인건환 사회예산심의관을 찾아 전북도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예산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인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반영 될 것을 건의 하고 ▲수사발 SRT 개통시 전라선 10회 증편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의 필요성과 조기완료를 촉구했다.

이울러 기재부에 방문한 송 지사는 박춘섭 예산실장과 인건환 사회예산 심의관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 노형욱 재정관리관,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등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 전력 지중화 설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

발사업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사업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크고 굵직한 사업들의 추진을 적극 건의 했다.

기재부는 지난 1일까지 중기계획 심의를 마치고 4월초 중으로 부처별 한도액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4월부터 5월초에 부처별 국·과장·담당자를 대상으로 실국에서 2회이

상 방문하고 전북도 사업들에 대한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도의 실정에 맞는 적합성 등을 꾸준히 설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처에서 예산편성의 윤곽이 드러나는 5월초~5월말 기간 동안 도의 쟁점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해 4월말 지역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치권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 개강

전주시가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취득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이지훈)는 4일 고려검정고시학원에서 관내 결혼이주여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검정고시반 개강식을 가졌다.

시는 학력 등 자격조건 미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고려검정고시학원과 기관연계를 통해 총 3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검정고시반은 가사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수한 환경과 여건에 맞게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교육시스템을 개발해 체계

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강식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 이길지(중국)씨는 "선배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이 부러워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는 꼭 대학에 갈 계획"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배움을 열망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학력취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려검정고시학원은 지난해 25명의 교육생 중 초졸 반 5명, 중졸 반 8명, 고졸 반 5명이 합격해 79%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김영재기자

# 지인과 짜고 데이트여성 집 텀 30대 '덜미'

호감을 갖고 데이트까지 한 여성과 연애가 풀리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지인과 짜고 여성의 집을 텀 30대와 공범이 경찰이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군대 동기와 짜고 데이트까지 한 A(35·여)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36)씨와 유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8일 밤 10시30분께 군대 동기 정씨가 A씨와 함께 집을 나선 틈을 타 빈집에 침입해 현금 1800만원과 목걸이 등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범행은 군대 동기 정씨의 제인을 받아 이뤄졌다.

정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연정을 품고 연애감정을 키웠지만, A씨와 연애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유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씨는 범행 당일 "이삿짐 운반을 도와주겠다"며 A씨와 함께 집을 나갔고, 훔친 돈은 유씨와 함께 유용비로 탕진했다. /인진수기자

# 전주시, 택시 이용 고객만족도 높인다

### 자격증 게시·청결상태 등 준수사항 이행 실태 점검

전주시가 택시회사와 택시기사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2016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개최와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관내 3800여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택시 준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내 이용불편 사항 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상태,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부채표시, 택

시승강장 표지불기 등이다.

우선 시는 여객운송의 안정성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택시내부 부차물 준수와 택시 청결유지 상태를 점검해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한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편법운행을 근절시켜 운송질서를 확립시키고, 탈색·훼손된 택시는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전주시 교통정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택시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표지 불기)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시는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터

널, 병무청우거리 택시승강장 등 평소 차량운행이 많은데다 기차 및 버스 도착 시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승강장에서 표지를 몰며 대기하면서 주변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지역의 택시 승강장을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승강장 지정선을 벗어나 불법 주·정차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으로 1차 적발시에는 계도 조치하고, 추후 동영상을 촬영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 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간부급 공무원들은 지난 3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

화를 위해 시내버스와 택시를 직접 탑승해서 서비스 실태를 체험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담당부서인 전주시 시민교통과 직원들도 평소 출·퇴근, 출장, 기타 점검 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택시탑승 현장체험을 통해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불친절 등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만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쾌적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운수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정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노·사·민·정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 "헤어진 여친 왜 만나" 지인 폭행 20대 영장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지인을 폭행한 2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지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박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진수기자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47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지인 김모(23)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김씨가 맞고 쓰러지자 옆에 있던 벽돌로 김씨의 얼굴을 1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액세서리 판매점 업주 폭행 40대 女 벌금형

전주자벌 형사단(양시호 판사)은 4일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구입한 팔찌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물건을 부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낮 12시30분

께 전주의 한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진열대 위에 액세서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총 95개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업주 B(28·여)씨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기자

**주간(주말), 아간면접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함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문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도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겸임교수  
·면접지도 권위자 강사  
·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스피치&리더쉽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저서 : '355인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의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 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